

ISU

2016 SUMMER VOL. 85



INSIDE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꽃보다 야구

그룹 내 7개 야구팀 포수 인터뷰

OUTSIDE

먹어보니 맛있Show

전국 9개 야구장 먹거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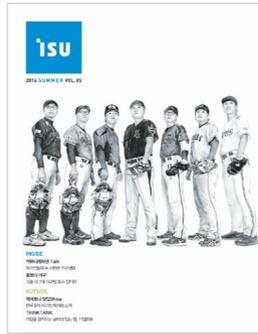
THINKTANK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기업문화

Contents

01

Coverstory



표지 모델

왼쪽부터 김대성 과장(이수시스템), 최영훈 차장(이수건설), 박영삼 선임기장(이수화학), 배태준 부장(이수엑사보드), 차진규 사원(토다이수), 강형호 과장(이수앱지스), 장재룡 사원(이수페타시스)

그룹 내 7개 야구팀 포수들이 뭉쳤다. 그들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어렵고 힘들다는 포수를 기꺼이 해내고 있다. 하지만 포수라서 더 없이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들. 멋진 여름호 표지를 위해서 포수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온몸으로 표현해 냈다.

04

INSIDE

05 이수 Focus & News

10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14 Photo essay

사진으로 말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김수열 _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선임기장

육헌민 _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 사원

16 꽃보다 야구

그룹 내 7개 야구팀 포수 인터뷰

22 이수 Topic

Ready Action!

'도전 멘토링' 촬영 현장 이야기

24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_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27

OUTSIDE

28 먹어보니 맛있Show

전국 9개 야구장 먹거리 소개

32 몸도 마음도 힐링

전남 곡성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38 Hot & New

비현실이 현실로

차세대 플랫폼, 가상현실 (VR)

42 THINKTANK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기업문화

46 정보 짬! 건강 짬!

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

49 Ombudsman

50 퀴즈 및 엽서

(주)이수 계간 사보 2016년 여름호 통권 85호

발행일 2016년 7월 11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895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장구 · 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 · 김다혜)
이수건설(김대나) 이수시스템(김가혜) 이수창업투자(정유숙)
이수앱지스(김영은) 이수엑사캠(김재용)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홍주희, 디자이너 민수기

인쇄 삼우아트(주)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과 성과를 점검하고 거침없이 달린다

이수그룹 2016년 1분기 경영 실적 및 2분기 전망 보고

4월 20일 전 계열사의 1분기 경영 실적 및 2분기 전망 보고가 이수화학 온산공장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후 1시 이수화학을 시작으로 이수시스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보고가 이어졌고, 2분기에는 보다 나은 모습과 성과를 다짐했다. 김상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기념촬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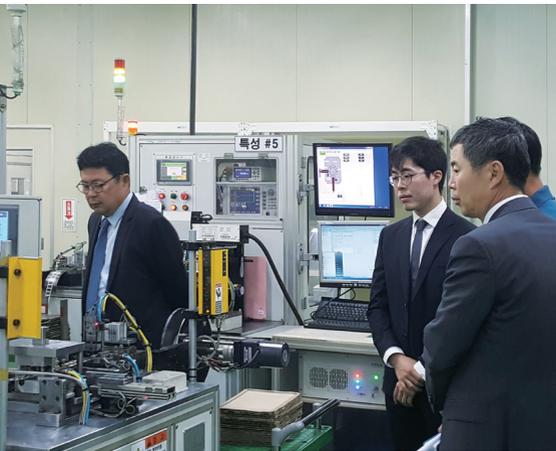
생산 공정 시찰 및 현장 근로자 격려

지난 6월 17일 김상범 회장과 ㈜이수 황엽 대표 이사 일행은 이수엑사보드 공장을 방문했다. 김상범 회장은 경영 현황 및 공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보고를 받은 후 현장 투어에 나섰다. 생산 공정 시찰에서는 현장의 환경과 공정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창립기념일 맞은 토다이수 방문

지난 5월 26일 김상범 회장은 창립기념일을 맞은 토다이수를 방문했다. 업무 현황 보고를 받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SHEET 공정 시찰도 이어졌다. 이어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페타시스, 엑사보드와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토다이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



2016 이수그룹 회장배 야구대회 열려

이수그룹의 야구인들이 하나 되는 '2016 이수그룹 회장배 야구대회'가 6월 11일 IPA(인천항만공사) 불파크 야구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총 7개팀 (이수슬러거스, 이수최강, 이수아레스, 이수브라운스톤리자드, 이수유티머스, 이수엑서스, 이수다이나믹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결승전에 앞서, 특별 게스트인 신수지가 360도 다리회전 시구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기의 우승은 이수엑서스(이수엑사보드)가 차지했다.

이수화학



비연봉제 직원 대상 '2016 소통과 화합의 조직활성화 교육' 실시

이수화학은 울산 및 온산 공장의 비연봉제 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경주 드림센터에서 '2016 소통과 화합의 조직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1박 2일 과정으로 총 4차수(5/9 ~ 5/10, 5/16 ~ 5/17, 5/23 ~ 5/24, 6/13 ~ 6/14)에 걸쳐 진행됐으며, 다양한 팀플레이 교육을 통해 직원들 간 팀워크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 임원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높은 만족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수페타시스



힘찬 미래를 여는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6월 창립 27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성민 대표이사를 비롯해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근속자, 공로상, 모범상, 우수기능상에 대한 시상식이 주어졌다. 김성민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최선, 일에 대한 정성과 성실한 태도, 소통과 배려 문화의 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스물일곱 살 청년기를 맞은 이수페타시스의 힘찬 미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수건설



인천 부평 삼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외 연이은 수주

이수건설이 지난 4월 '인천 부평 삼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금액은 1,034억 원으로 지하1층~지상24층 아파트 7개 동, 총 717세대 규모다. 6월에는 LH '평택고덕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수주에 성공해 기술 제안으로는 두 번째 수주를 기록했다. 또한, 조경 부문에서는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공사'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정수장 조성 공사'를 각각 수주해 연이은 성과를 얻었다.



브라운스톤, LH 주관 2016 우수 시공업체 선정

지난 4월 LH에서 주관한 '2016 우수 시공업체 선정'에서 이수건설은 시공 품질 및 현장 관리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주거 시설 분야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LH 공사 참여 시 선급금을 30%에서 50%로 상향 지급 받게 되며, LH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참여 시 다양한 가점 부여 혜택을 받게 돼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수창업투자



영화 '밀정', '핸즈 오브 스톤'

이수창업투자는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다. 4월~6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아가씨', '무서운 이야기 3' 등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흥영했고, 창작 뮤지컬 '마타하리'도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7월~9월에는 한국영화 '밀정', 외화 '핸즈 오브 스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영 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이수앱지스



새로운 도약의 시작,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이수앱지스는 지난 3월 28일, 창립 제 15주년을 맞이해 남한산성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남한산성 돌레길을 걸으며 화합을 다졌고, 장기근속자 7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개의 본·지점으로 분리돼 평소 만날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

이수엑사캠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펼쳐

지난 4월 22일 이수엑사캠은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곳은 이수엑사캠이 지난해 말부터 인연을 맺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전 직원은 5개로 팀을 이뤄 배수로 청소 및 환경 정리, 바자회 물품 및 시설 정리와 센터 인원들의 재기를 돕는 작업을 각각 진행했다. 이수엑사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수엑사보드



'불량 추방 결의 발대식' 가져

이수엑사보드는 지난 6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안산과 인천 공장에서 '불량 추방 결의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의 취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시작으로 고질 불량과 신뢰성 불량 및 외관 불량 유출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품질 사수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철저히 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의 삶은 고민의 연속입니다. 당장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부터 여자친구에게 사랑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크고 작은 고민들이 산재하죠. 그럴 때 딱히 해결책은 생각 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다면 이수가족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육아문제는 아들만 셋을 키우는 이 과장님에게, 일에 관한 것이라면 직장생활 20년 차인 김 부장님에게... 당신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톡톡톡~ 터지는 시원한 사이다 한 잔처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끊임 없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배님의 동기부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승용 사원 (이수화학 영업지원팀)



쉬운 질문을 기대했었는데 제 스스로도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그간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 또한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회사 사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 “가정(개인)과 회사 생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나요?” 라고 질문했다더군요. 그 때 사장님의 대답은 “못 잡는다. 그렇지만 가정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많은 접촉을 하려 한다”라고 하셨다네요. 당시 친구는 회사 생활에 많이 지쳐 있던 상황이라 그 대답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후배님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니 그 답을 듣고 앞의 이야기처럼 실망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조언을 드리자면 동기부여는 흥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는 보통의 경우 오래했던 일하고는 관련이 없죠. 회사생활의 동기부여를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뒤로 미뤄주세요.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해 보면 막연했던 것이 하나씩 눈앞에 보이고 조금은 성장했다는 느낌이 끊임없는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창 차장 (이수시스템 ERP사업팀)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제관념을 익히는데 도움 되었던 방법이나
사소해 보이지만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강아름 사원 (이수페타시스 영업관리파트)

Q



정유진 과장
(㈜이수 경영지원팀)

저도 입사 후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적 없이 예금통장에만 넣어 두면 아깝아금 줄어들기 마련이죠. 제가 입사했을 때는 '20대일 경우 안전 자산에 20%, 투자자산에 80%를 투자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에 휩쓸리는 것보다 본인의 성향과 목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용 자금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2017년 휴가비, 내 집 장만 자금 등 목적에 따라 목표 금액과 운용기간을 설정해 두면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주

식이나 파생상품 등 투자자산을 선호하는 편이라면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내 최고 20% 도달 시 환매, 최저 -20% 시 손절 등으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거나 운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테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미혼인 사람은 특히 연말정산 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혜택을 봤고, 또 추천하는 세테크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 개인 IRP까지 추가로 개설할 경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과 고정비, 약간의 용돈을 제외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문제에 답이 있진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랑을 원동력으로 하는 '나와 상대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면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 싱글들은 결혼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결혼의 가장 기본 요소인 '사랑'을 빼고 기타의 것들을 중요시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은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만나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말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화창한 날씨에 가볍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지만 좋은 레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코스여도 그 레이스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장원 사원 (㈜이수 경영지원팀)

Q

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더 실감하면서 사셨습니다. 아직은 레이스 초반인 제가 감히 결혼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분명 혼자일 때보다는 수고로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는 몇 배로 더 커진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배동구 부장
(이수앱지스 신약개발팀)



쌍둥이

사연_ 김수열 선임기정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게 쌍둥이가 온 것이죠!

간혹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겠어”

“돈 많이 벌어야겠어~”

네! 솔직히 힘들 때도 있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공주님 덕분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웃음과 행복, 사랑이 넘쳐나는 길요~

녹아내리는 쌍둥이의 애교는 제게 활력소이자 삶의 즐거움이죠.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쌍둥이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빠 품에 와서 안겨주어 고맙고

언제나 지금처럼만 밝게 웃어주길 바란다.

있지 마렴.

엄마, 아빠가 하늘 땅땅 만큼 사랑한다!

한 조각의 기억

사연_ 육현민 사원 (이수시스템 솔루션개발팀)



지난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베니스의 첫 번째 다리인 리알토(Ponte di Rialto)에서 대운하를 내려다 봤었죠.

사진으로 느껴지실까요?

그곳의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아까울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정으로 지쳤던 몸이 그 한 순간으로 모두 회복되는 듯 했죠.

but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소중한 순간도 손안에 모래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다 마주친 사진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써보죠.

저 역시 리알토에서의 감동을 되새기려고 이 사진을 종종 만지작거립니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사진 한 장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고마운 친구가 되죠.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무거운 어깨를 토닥여줄 사진 한 장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의 힘을 직접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걸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좋은 추억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hee895 / 이메일 : jhk653@isu.co.kr

영원한 히든챔피언 그 이름은 포수

이수그룹에는 모두 7개의 야구팀이 있다. 매년 '이수그룹 회장배 야구대회'가 열릴 정도로 사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6번 째 야구대회가 열렸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열정을 불태운 7개의 야구팀. 그 중에서도 안방마님이라 불리며 온갖 갖은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포수들을 만났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쭈그리고 앉았다를 반복, 투수를 리드하고 경기 흐름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열일을 해내는 포수. 누구나 기피하는 그 자리를 그들은 왜 매력적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인터뷰 진행 _ 김정희 대리(주)이수 브랜드관리팀 인터뷰이 _ 그룹 내 7개 야구팀 포수들



각자 속한 야구팀 소개와 자랑을 해주세요!

배태준 부장 _ 저희 이수엑서스는 2008년 창단한 이수엑사보드 내 야구팀입니다. 지역 리그 3부 우승 4회 및 그룹 야구대회 최초 3회 우승을 일궈낸 팀이죠.

최영훈 차장 _ 이수건설 사내 야구팀 브라운스톤은 창단한 지 7년 째로 이수건설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아직 실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팀웍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야구와 함께 동료애와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박영삼 선임기장 _ 저희 이수화학의 이수최강팀은 황현서 감독 및 정현준 코치를 비롯해 선수층이 두껍고 특히 감독과 코치가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겸비해 야구 초보자도 빛나는 에이스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성 과장 _ 이수시스템의 이수옴티머스는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이 약합니다. 주전들은 실력이 늘지 않는 정체기를 겪고 있고 기회만 기다리는 유망주도 많답니다. 즉, 성장할 일만 남은 팀이라는 거죠. 꼴찌들의 반란같이 결국 감동을 선사하는 야구팀이 돼 보이겠습니다.

강형호 과장 _ 이수슬러거스는 2010년 창단해 (주)이수, 이수엠피스, 이수엑사캠 3개사가 모인 연합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팀은 최고의 단장님을 필두로 그룹 최강 원투펀치인 박건태,

권오석 선수를 중심으로 뛰어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룡 사원 _ 이수페타시스 야구팀 이수아레스는 2003년 창단해 오랜 기간 활동해 왔습니다. 그만큼 팀의 조직력과 단결력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죠.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난 항상 즐거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진규 사원 _ 2010년 창단한 토다이수의 이수다이나믹스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야구팀입니다. '야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통하는 것이 많고, 승패에 구속받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야구를 즐기는 팀입니다.

“ 야구팀 깨알 자랑으로 시작된 포수들의 야구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





야구팀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박영삼 선임기장 _ 남자들은 야구선수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늘 야구를 품고 살다가 사내 동아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달려가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재룡 사원 _ 학창 시절 씨름선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지요. 야구는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아레스의 전력이 약화됐을 때, 지금 1루수를 보고 있는 배희상 선배의 권유로 소주 한 잔의 입단금을 받고 화려하게 아레스에 입단하게 되었죠!(하하)

“ 남자들의 로망, 야구선수. 그 파릇한 꿈을 안고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오늘 모이신 분들은 포지션이 모두 '포수'입니다. 포수는 어떻게 맡게 됐는지 야구에서 포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영훈 차장 _ 처음에는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도 기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즐길 줄 안다면 포수는 매력적인 자리죠. 상황별 전략도 짜야하고 야구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

니다. 물론 자세도 힘들고 수비 플레이 및 투수의 상태 파악 등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참맛을 알려면 포수라는 포지션이 제격이죠.

김대성 과장 _ 포수는 경기에서 공을 많이 잡는 포지션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 미트에 시원하게 꽂힐 때 그 짜릿함은 포수만이 맛볼 수 있죠. '포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호상박의 두 팀이 붙을 한국시리즈라면, 결국 포수가 강한 팀이 우승한다' 그 만큼 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진규 사원 _ 포지션을 정하는 자리에서 포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경도 쓰고 몸도 가늘고, 어깨도 수시로 말썽이고 포수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별명이 '생긴 대로 안 논다'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땀도 더 흘릴 겸, 역전의 명수도 돼볼 겸 해서 시작했습니다.

“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포지션 포수. 누구도 선뜻 하려 하지 않는 그 자리를 해내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는 특별한 빛이 납니다. ”



왼쪽부터 차진규 사원 (이수다이나믹스), 장재룡 사원 (이수아레스), 배태준 부장 (이수엑서스), 김정희 대리 ((주)이수), 박영삼 선임기장 (이수최강), 김대성 과장 (이수옵티머스), 최영훈 차장 (이수브라운스톤), 강형호 과장 (이수슬러거스)



야구팀을 시작하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요?

배태준 부장 _ 얻은 것은 우승트로피?!(하하) 농담이구요~ 우승에 대한 성과나 명예도 있겠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잃은 것은 별로 없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아빠 모습을

그려오라는 숙제에 제가 야구하는 모습을 그려서 살짝 야구선수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강형호 과장 _ 팀플레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팀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한 내면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주

말마다 집을 나설 때 아내와 아이들의 눈빛 때문에 등줄기가 서늘한 기분을 매주 느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장재룡 사원 _ 많은 동료들을 알게 되고 사귀게 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포수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덕에 판단력과 결단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잃은 것은 답답한 군살과 아내의 사랑이랄까요? 여보~ 난 야구 보다 자기야!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구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나에게 야구란?

배태준 부장 _ 개인의 노력들이 조화롭게 연결돼 좋은 플레이로 이어질 때, 그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맛에 중독돼서 매주 장비를 들고 운동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게 야구란 아내와 같습니다. 매일 봐도 좋고 없어서도 안 될 존재니까요.

최영훈 차장 _ 야구의 묘미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승패를 모른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게 야구란 인생입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거든요.

박영삼 선임기장 _ 야구는 치는 공, 받는 공, 던지는 공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공 하나의 방향에 따라 어떨 때는 짜릿하고 어떨 때는 흥분하

고, 그렇게 오감을 즐기는 맛이 있죠. 그런 플레이 하나 하나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야구는 나 혼자만 빨리 가는 것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걸 알게 해주죠.

김대성 과장 _ 각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플레이를 만들어 냈을 때, 그리고 선수들끼리 격려와 응원의 눈빛을 교감할 때 바로 그때가 야구의 참맛을 느끼게 하죠. 야구는 제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제 아들이 인생을 배우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야구를 꼭 즐겼으면 합니다.

강형호 과장 _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 라는 말이 있죠! 역전의 기회가 열려있는 드라마틱한 야구는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역전의 기회가 분명 있다고.

장재룡 사원 _ 야구는 멘탈 스포츠라고 합니다. 야구의 90%는 정신력이라는 말처럼 누가 끝까지 집중하느냐에 승패가 달렸죠. 중요한 순간에 한방! 그 짜릿한 손맛은 온몸에 아드레날린을 폭



발하게 만듭니다. 그 희열을 맛본 사람이라면 야구를 놓을 순 없겠죠.

차진규 사원 _ 제게 야구란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기 전 느낌입니다. 내일 비가 오지 말라고 기

도하는 마음, 가방 안에 먹고 싶은 과자를 가득 넣어 놓고 신나하는 마음, 맛있는 김밥 먹을 생각, 보물찾기 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그 설렘이 바로 야구입니다.



“
짜릿함, 동료애, 설렘, 슯구치는 아드레날린... 야구가 선물하는 것이 참 많네요.
이번 주도 야구보약 많이 드시고 지금처럼 멋진, 활기찬 이수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장비들을 챙겨 먼 곳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Ready Action!



‘도전 멘토링’ 촬영 현장 이야기

지난 7월 2일과 3일에는 이수 반포사옥 아이러운지에서 ‘도전 멘토링’ 영상 촬영이 진행됐다. 작년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촬영에는 각 사업 부문에서 뽑힌 10명의 이수인들이 나섰다. 친절한 멘토로 분한 이수인들은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 할 업무 소개부터 경험담, 인생담까지 느낌표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외모로 무장한 멘토들은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다. 꼼꼼한 모니터링은 물론 위트 넘치는 말솜씨와 제스처를 연습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와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김수이 대리(페타시스 품질보증팀)는 힘들고 긴장되지만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한다.

“이수그룹을 궁금해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가 멘토가 돼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어쩌면 제 모습을 보고 이수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내고 싶습니다.”

땀과 열정을 쏟아내는 청년 이수인들의 이야기 ‘도전 멘토링’. 영상은 멘토들의 인터뷰와 근무지에서의 모습을 담아 그룹웨어와 반포사옥 아이러운지에서 상시로 상영될 예정이다. 옆의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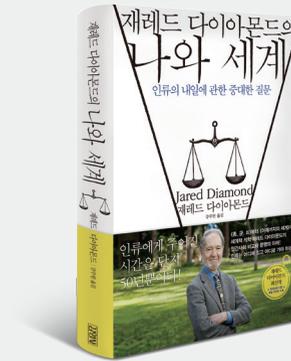


이수인에게 권하는 김상범 회장의 '좋은 책'



책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에 위로를 건넵니다.
혹여라도 삶에 지쳤을 당신을 위해
인생의 우주가 되어줄 좋은 책을 권합니다.
제가 느꼈던 깨달음과 뭉클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세계, 전통과 현대 사회를 넘나드는
재레드 다이아몬드 50년 문명 연구의 핵심”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 저 자 | 재레드 다이아몬드
| 출판사 | 김영사

저자 소개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 현재 UCLA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37년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리학자로 출발하여 진화생물학과 생물지리학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과학 전문지 <네이처> <내추럴 히스토리> <디스커버> 등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약하고 있다.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개 국어를 구사하며 2005년 영국의 <프로스펙트>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서 공동 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아홉 번째 인물이다. 전미과학상, 타일러 환경공로상, 일본 코스모스상, 록펠러대학이 시인이자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마스상을 수상했다. 대표적 저서로 풀리처상을 받은 <총, 균, 쇠>를 포함해, <어제까지의 세계> <문명의 붕괴> <제3의 침팬지> 등이 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한 인터뷰에서 “지구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1000년 뿐이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고작해야 50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망쳐 놓고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50여 년간의 문명대탐구를 통해 역사의 역동적인 변화와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인류가 처한 위기의 본질과 진실을 낱알이 파헤쳐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국부에 끼치는 영향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도 풍부한 잠비아가 땅이 해수면보다 낮고 평평해 댐을 쌓아 수력발전을 못하고,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불운까지 이겨내야 하는 네덜란드보다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가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 중국의 지리적 조건, 언어와 농업, 선사시대와 유사시대, 현재의 조건 등을 압축적으로 다룬다. 유럽 지도를 보면 커다란 섬(예: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커다란 반도(예: 이탈리아와 그리스), 횡단하는 산맥(예: 알프스와 피레네),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흐르는 강들(예: 라인 강과 다뉴브 강)이 눈에 띄는 반면 중국에는 그런 지리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리적 차이가 중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 여러 국가의 위기를 비교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일본과 영국, 독일과 칠레 등 여러 국가가 외적인 원인이나 내적인 원인, 혹은 양쪽 모두의 원인에서 비롯된 위기를 맞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 한편 1910년 일본 강요에 의한 한일병합조약, 1950년에 시작해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 전후의 회복과 산업화 등 한국이 겪은 위기들을 되짚어본다.

전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서구식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개인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전통사회 방식으로 살고 있는 뉴기니 사람들의 대응 방법과 비교해본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뉴기니 탐사 활동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예상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여기에서는 그중 '건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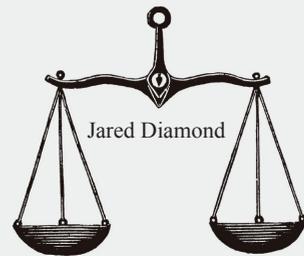
편집증'이란 사고방식을 채택할 필요성과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항공기 추락에 대한 걱정보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소한 사고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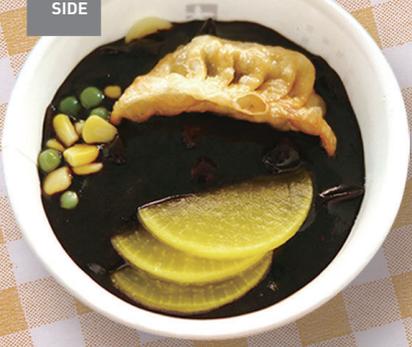
뉴기니 원주민을 비롯해 전통적인 삶을 영위하는 많은 종족은, 한국인과 미국인 등 현대인의 주된 사인인 당뇨병과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전통적인 삶을 영위하던 뉴기니 원주민을 비롯해 많은 전통적인 부족이 서구적인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런 질병들로 고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사회의 생활 방식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런 질병들에 굴복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무척 중요한 개념이지만 복잡해서, 대다수가 헛갈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불평등, 환경자원의 남용 등을 상세하게 파헤쳐본다. 이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OUT
SIDE



스테이크·곰장어·고로케...
별미 맛보니 야구 재미 두 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맥(치킨+맥주)'은 뭘까? 정답은 '야구장 치맥' 이란다. 야구장에서 치맥의 인기는 여전하다. 그렇다고 야구장에 치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삼겹살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대만에서 인기 있는 납작한 치킨 '치파이' 등 외국 먹거리도 만날 수 있다. '김광현 치카치카'처럼 선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개발한 메뉴도 있고 '야신고로케'처럼 감독의 별명에서 나온 메뉴도 있다. 전국 9개 야구장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 중앙일보



전국 9개 야구장 대표 먹거리



삼겹살 등 700여 가지 _ 서울 잠실구장



잠실구장에서 파는 음식은 700가지가 넘는다. 음식을 파는 식당과 매점이 모두 52곳이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가장 좋은 곳이 삼겹살 정식(1만7000원)을 파는 '통밥'이다. 통밥은 컵밥 전문점인데 잠실 구장에 들어오면서 삼겹살 메뉴를 추가했다. 하루 평균 120~140개 팔린다고 한다.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초벌구이를 해둔 삼겹살을 철판에서 한 번



더 굽는다. 전화(010-4564-7530)로 주문하면 관중석까지 배달도 해준다. 서울 왕십리의 맛집 '어메불곰창'도 입점했다.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불족발(9900원)과 아채곰창(9900원)이 인기다. 외국인 관중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도 있다. 스페인 추러스(3000원~), 대만 오징어 튀김(6000원~), 벨기에 와플(2500원~) 등이다.

짜장면 팔아요 _ 서울 고척스카이돔구장



국내 야구장 중에서 유일하게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주중에는 평균 150그릇, 주말에는 300그릇이 팔린다. "왜 야구장에는 우리나라 대표 배달 음식 짜장면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야구장 중국집을 구상했다"고 고척구장 중국집 '차이나 플레인' 측은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있는 본점의 주방을 옮겨왔다. 야구장에서 직접 짜장을



볶고 탕수육을 튀긴다. 시중의 짜장면 맛과 차이를 못 느낀다. 배달도 해주는데 내야석 2층과 4층만 가능하다. 전화(02-3666-8484)로 1만5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관중석까지 찾아간다. 짜장면(5000원), 탕수육(1만원), 간pong(1만2000원), 햄버거도 인기 메뉴다. 뉴욕 돔구장떡(1만3500원), 타코야끼(6000원).

'김광현 치카치카' _ 인천 SK행복드림구장



SK는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로 유명한 팀이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용어이다. 그래서 SK 구장에는 기발한 이름을 붙인 음식이 많다. '정! 권! 끝내기 한 판(마르게리타 피자, 1만6000원)' '최정 한 방! 쏘시지(모듬 소시지, 1만8000원)' '김광현 치카치카(치킨과 카사바칩, 1만7000원)' 등 선수 이름을 딴 메뉴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 구단 홍보팀은 "마케팅



팀과 매장 주인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선수 이름을 붙였더니 매출이 2배 정도 뛰었다고 한다. '추억의 도시락'은 흔들어 먹는 방법에 착안해 '썹썹 도시락(5000원)'으로, 김치 볶음밥은 'SK 불꽃 투혼 밥(7000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SK는 올 시즌을 앞두고 마스코트를 '이울(부엉이)'로 교체했다. 그래서 부엉이 모양의 빵(3000원)도 있다.

지역 명물 '진미통닭' _ 수원kt 위즈파크



kt 위즈파크에는 수원의 명물 맛집들이 들어와 있다. '진미통닭'이 대표 선수다. 수원 팔달구 통닭골목엔 소규모 통닭집 11곳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통닭집이다. 주물로 만든 가마솥에 닭을 튀겨내 튀김옷이 바삭하고 살이 부드럽다. 프라이드치킨 1마리 1만7000원. '보영만두'는 수원에서 만두로 유명한 분식집이다. 손으로 빚은 군만두



(10개) 5000원, 쫄면 5500원. 수원 조원동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수제 돈가스 매장 '마돈나'도 만날 수 있다. 수익금 전액이 조원동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쓰인다. 돈가스 도시락 7000원. 수원구장에서는 애플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kt 위즈 어플 '위잡'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준비됐다는 답신이 오면 매장에서 찾아오면 된다.

아신고로케 _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대전구장의 애스 먹거리는 아신고로케(2000원)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속에 으갠 통감자와 채소가 어우러져 있다. 원래는 '아체가 신선한 고로케'의 줄임말인데, 김성근 한화 이글스 감독의 별명 '아신'이 단박에 떠오른다. 대전구장에는 아신고로케 말고도 감자·단호박·카레 맛 등 다양한 종류의 고로케가 있다. 하루 평균 500



개 정도가 팔리는데, 절반 이상이 아신고로케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좋지 않지만 아신고로케 인기는 여전히 높다. 요즘에는 원정 팬도 즐겨 찾다고 한다. 대전구장에는 소고기 스테이크(8000원)도 있다. 대전 유성구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리에또 피렌체'에서 개발한 메뉴로,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부위로 만들었다.

만루홈런세트 _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올해 개장한 대구구장은 3루쪽 내야석 2층에 푸드 코트를 마련했다. 메뉴 이름도 재미있고 종류도 다양하다. 대만의 치킨으로 불리는 지파이(5000원), 음메 스테이크(1만원), 길죽한 불고기 피자(8600원) 등이 인기다. 푸드 코트에서는 그라운드가 안 보인다. 대신 TV가 있다. 야구장 3층 통로를 따라 지역 별미를 파는 식당이 줄지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방천시장 김광석 거리의 분식집 '로라 방앗간'이다. 떡볶이(3500원)·납작만두(3000원) 등을 파는데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만루홈런세트(1만2000원)다. 떡볶이·모듬튀김·납작만두·치즈떡도 그를 한 박스에 넣었다. 대구 평화시장의 명물 닭뚱집(1만원)도 있다. 2층 통로에서는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1잔 5000원.

곰장어 굽는 냄새 _ 부산 사직구장



부산 사직구장에선 곰장어도 구워 먹는다. 외야석 통로에서 직접 굽는다. 통로를 따라 곰장어 굽는 냄새가 구장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1인분 1만원. '클럽 번'이라는 수제 버거도 인기다. 롯데 구단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메뉴다. 구단이 매장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3000원)이 싸다. 보통 햄버거는 빵이 두 조각인



데, 클럽 번은 포수 미트처럼 빵 한 조각이 반으로 접혀 있다. 그 사이에 패티가 들어간다. 롯데리아의 '아주라팩(1만9000원)'은 사직구장의 롯데리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다. 사직구장에서 파울볼이 나오면 일제히 '아주라(아이에게 공을 주라는 뜻!) 아주라!'를 외치는 문화에서 힌트를 얻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순살치킨으로 만들었다.

컵라면 전용좌석 _ 창원 마산구장



마산구장의 대표 메뉴는 '큐브 스테이크'다. 철판에 구운 미국산 소고기 부챗살(앞다리 등심 사이 부위)을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새콤한 소스를 뿌려서 나온다. 스테이크에 짭짤한 감자튀김과 잘게 썬 양파도 곁들인다. 7000원. NC 다이노스의 캐릭터 '단디'와 '세리'의 이름을 딴 도시락도 있다. 단디무라 돈가스 도시락(6000원)과 세리무라 컵



밥(2800원)이다. 마산구장 오른쪽 외야석 구석에는 컵라면만 파는 '라면존'도 있다. 10가지가 넘는 컵라면이 있다(2000원). 사실 마산구장의 대표 음식은 따로 있었다. NC 팬 사이에서 '이재학'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딸기주스다. 간판 투수 이재학의 별명인 '딸기'에서 착안한 메뉴였는데, 올해 카페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메뉴도 사라졌다.

바비큐·샐러드 등 3번 세트 _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구장



맛의 고장 광주라지만 야구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광주팬의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웠는지 이름난 메뉴가 없다. 야구공 모양의 호두과자 '타이거즈 볼'이 한때 인기였지만, 이 메뉴도 2014년 시즌을 끝으로 없어졌다. 지금은 지난해 데뷔한 '챔피언스 볼 닭꼬치(5000원)'가 광주구장의 맛을 이끌고 있다. 하루 평균 300개 가까이 팔린다고 한다. 40cm 길



이로 일반 닭꼬치보다 두 배 기량 길다.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 푸짐하게 먹고 싶다면 3루쪽 내야석 4층에 있는 클럽라운지 '카스펍'으로 가면 된다. 야외 테라스석에 앉아 편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다. 1번부터 4번까지 세트 메뉴가 있는데, 통돼지 바비큐·순살치킨·돈가스·소시지·샐러드 등을 묶은 '3번(6만원)'이 제일 잘 나간다.



지금 곡성 가는 거 말고 뭣이 중헌디?

곡성(谷城)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전남이 자랑하는 구례, 순천, 담양의
뜸바구니에 낀 탓에 그 명성이 희석되었지만,
사실 곡성은 그들 못지않은 아름다운 풍경과
유구한 역사를 품은 명찰 그리고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17번 국도라는
걸출한 드라이브 코스를 보유한 고장이다.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한 기차마을 증기기차와
섬진강 레일바이크 그리고 백제시대 고찰
태안사 등이 곡성을 대표하는 관광지.
여름 휴가철을 위한 곡성 테마여행을 시작한다.

글 / 사진_ 예담 (여행작가)

※ 곡성이 뜨는 이유가 궁금하세요? _____
지난 상반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곡성뿔뿔> 때문일까?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고장 '곡
성(谷城)'의 관광 흥행몰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5월
말에는 주말 이틀 동안, 곡성군 인구보다 많은 4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조용한 소읍에 다녀갔다. 평일 방문객도 예
년보다 2배 늘었다는 소식이다.



Theme 1

곡성이 자랑하는 대표 명소 들르기

곡성이면 빼놓을 수 없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태안사·도림사 계곡은 곡성 여행의 정점이다. 추억의 증기기차를 타보고 수려한 계곡을 자랑하는 태안사·도림사 계곡은 곡성 여행에 만족을 더해준다.

▶ 추억의 섬진강 기차마을

전남 곡성 최고의 히트상품은 역시 섬진강 기차마을이다. 폐선된 단선 전라선 철길 위를 달리는 증기기차는 비록 디젤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지만 외형만큼은 과거의 증기기차를 쏙 빼닮았고 기적소리도 그럴싸하게 흉내 낸다. 곡성의 고을과 고을 그리고 장터와 장터를 연결하던 옛 증기기차는 이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며 그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옛 곡성역을 출발한 증기기차는 레일바이크 출발점인 침곡역을 통과해 가정역까지 10km 거리를 운행한다. 가정역에서 하차하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곡성역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물론 기차마을의 볼거리와 놀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증기기차 승차장에 불과하던 기차마을은 몇 년 전부터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되면서 아름다운 꽃의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여름에는 연못에 피어나는 고고한 기품의 연꽃이 장미를 대신한다.

① 주 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입장료: 증기기차(편도) 성인 4천5백 원,
 소인·경로 4천 원
 연락처: 061-363-9900 / www.gstrain.co.kr

▶ 계곡물에 발 담그고 힐링, 태안사&도림사 계곡

이웃한 구례와 하동이 각각 화엄사와 쌍계사라는 명찰을 보유한 탓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곡성에도 태안사와 도림사라는 고운 절집이 있다. 두 사찰은 절집 자체도 좋지만 진입로를 따라 흐르는 계곡이 아름다운 것으로 더 유명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유리알처럼 맑은 계수에 발을 담그고 신선놀음을 해보길 권한다. 태안사계곡은 계곡 주변에 울창한 숲을 끼고 있어 그들이 많고 도림사 계곡은 너른 암반지대가 형성돼 있어 물놀이에 적합하다.

① 주 소: 태안사_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입장료: 성인 1천5백 원, 학생 1천 원
 연락처: 061-363-6622

① 주 소: 도림사_ 전남 곡성군 곡성을 월봉리 295-1
 입장료: 성인 2천 원, 학생 1천5백 원
 연락처: 061-362-2727



Theme 2

곡성의 자연을 오롯이 느껴보기

자연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은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섬진강천문대, 물길 따라 유유히 흘러가는 래프팅으로 곡성의 자연을 오롯이 느껴보자.

▶ 강변에서 별 헤는 밤, 섬진강천문대

곡성에는 하늘을 가린 초고층 마천루도 없고 별 빛을 가리는 빛공해도 없다. 당연히 땅거미가 지면 하늘에 종종 별이 뜨기 시작한다. 여름에는 선명한 은하수 띠도 감상할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곡성의 밤하늘에 가득한 별밭은 맨눈으로 봐도 좋지만 이왕이면 섬진강천문대를 방문해 천체망원경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건 어떨까? 섬진강천문대에는 국내 기술로 제작한 600mm 천체망원경을 비롯해 원형돔 스크린을 갖춘 천체투영실과 전시실, 시청각실 등 천체(天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① 주 소: 전남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
입장료: 성인 3천 원, 어린이 1천 원
연락처: 061-363-8528~9/star.gokseong.go.kr

▶ 섬진청류 풍경 감상하는 래프팅

곡성의 젓줄 섬진강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강을 타고 흐르는 래프팅은 어떨까? 가정역 구름다리 아래 수변에서 출발해 압록유원지까지 5km 구간을 체험하는 코스로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비가 온 직후를 제외하면 물살이 잔잔해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고,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다. 체험은 곡성군청소년야영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전거 대여와 숙박(캠핑·글램핑)도 가능하다.

① 섬진강 래프팅 코스(5km, 1시간 30분 소요):
곡성청소년야영장 → 심청여울 → 드센바위 → 압록유원지
래프팅 체험비: 1인 기준 3만 원
연락처: 061-362-4186, 4189
www.gokseongcamp.com



Theme 3

유구한 역사와 풍물 담긴 문화 체험

유구한 전통을 배우고 지역 고유의 풍물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창작동요를 배우고 인형극을 관람하는 스토리텔링형 체험 문화학교 섬진강도깨비마을과 정겨운 우리 옛집 한옥에서 목을 수 있는 심청한옥 마을에서의 특별한 시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 정겨운 우리 옛집, 심청한옥마을

우리의 대표적인 옛 이야기 <심청전>의 모태가 된 설화의 배경이 전라남도 곡성군이라고 한다. 섬진강을 따라 곡성을 드나들던 중국 무역선에 실려 간 곡성의 효녀가 실제 심청전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 설화를 테마로 조성된 심청한옥마을은 전통가옥 체험 및 숙박이 가능한 곳이다. 목조로 뼈대를 만들어 황토로 벽을 바르고 지붕에 이엉을 엮은 초가 혹은 기와를 엮은 기와집이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물레방아와 연꽃이 만개하는 연못을 조성하고 효녀 심청과 아버지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 풀내음, 바람 소리 그리고 전통 설화까지 한데 엮어진 한옥마을에서의 하룻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① 주 소: 전남 곡성군 오곡면 심청로 178
숙박료: 1박 기준 6만 원~ 35만 원
연락처: 061-363-9910 / www.sc-story.co.kr

▶ 어른들도 즐거운 섬진강도깨비마을

섬진강도깨비마을은 도깨비 전설이 전해내려 오는 섬진강변의 고달면 산자락에 숨겨져 있다. 이곳은 도깨비 설화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의 창작동화와 동요 그리고 인형극을 콘텐츠로 삼은 스토리텔링 문화학교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는 인형극. 호랑이와 토끼가 등장하는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는 아이들과 대화하며 극을 전개해 나가는 쌍방향 인형극이다. 아이들의 기발한 대답 때문에 어른들도 즐겁게 웃으며 관람하게 된다.

① 주 소: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도깨비길 119-97
입장료: 5천 원
연락처: 061-362-2954 / www.dokaebi.co.kr



비현실이 현실로 차세대 플랫폼, 가상현실(VR)

MWC 2016에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VR 관련 기술들을 선보였다. LG는 'LG D Day'에서 G5&Friends 중 하나로 360VR을 선보였으며 삼성은 갤럭시 언팩 2016에서 마크 주커버그까지 등장시키면서 기어 VR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SKT도 VR 관련 기술들을 MWC 2016에서 선보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VR 관련 기술 및 콘텐츠들을 선보이며 2016년 이후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VR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_ 이학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아키텍처, IT 블로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MWC 2016에서)



서울에서 호주의 번지점프를 경험하다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로 요즘은 그냥 줄여서 VR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줄여서 AR이라고도 함)을 분리해서 얘기하곤 했지만 지금은 다 혼합해서 가상현실이라는 카테고리로 말한다. 가상현실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환경, 즉 만들어진 환경을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체험됐지만 최근에는 실제의 환경을 느낄 수 있게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의 가상현실은 컴퓨터 게임 속의 주인공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아니면 3D 슈팅게임 중 FPS 계열 게임들을 직접 VR용 헤드셋과 전자총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뛰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 대신에 배경이나 사람들이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내가 호주의 번지점프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든지 롤러코스터를 현지에서 타지 않고도 VR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MWC 2016에서 선보인 다양한 VR 콘텐츠

VR의 최근 발전 방향은 실제의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을 가미한 혼합 방식으로 현실적인 세계를 체험시켜 주지만 현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현장과 같은 현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번 MWC 2016에서 선보인 다양한 VR용 기술과 콘텐츠를 보면 삼성이나 LG의 경우 롤러코스터를 타는 콘텐츠를 VR을 통해서 보여줬다. 또한 SKT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을 구경하는 콘텐츠를, 고프로(GoPro)는 자전거를 타고 옥상을 뛰어 다니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포드(Ford) 역시 VR을 통해 파트너와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콘텐츠를, 바이브(VIVE)도 우주공간에서 총을 쏘거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의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VR용 콘텐츠들이 MWC 2016을 통해서 선보였는데, 예전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혹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컴퓨터 그래픽과 컨트롤을 더하는 실제 같은 가상현실로 발전했다.



VR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

많은 전문가들이 VR이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구글의 유튜브에서는 360도를 지원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페이스북 역시 360도 영상 콘텐츠 재생을 차세대 킬러 기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360도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한 면만을 바라볼 수 없는, 즉 렌즈의 시야가 전부인 콘텐츠의 시선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람이 보는 눈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시선 앞의 뷰 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다른 방향의 뷰까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진과 영상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방향의 뷰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뷰다.(그 자체는 실제이지만) 그렇기에 360도 영상이나 사진은 가상현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으며 차세대 플랫폼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

가상현실이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나 교육 분야다.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역사 분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VR은 최고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체 내부의 장기의 모습들을 전체적인 조명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직접 움직이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더

발전해 의대에서도 실제로 수술하지 않고도 VR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실제 사람을 수술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역사 시간에서도 마치 내가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직접 5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을 보고 걷는다든지 임진왜란 때 직접 거북선에 타서 전쟁을 치른다든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VR을 통해서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 게임은 가상현실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실현하고 있는 분야다. 실제로 VR용 콘텐츠들 중 상당수가 게임이며 게임의 특성 상 가상현실과 가장 잘 맞는 콘텐츠이기도 하다. 이미 실제와 같은 수준으로 마치 내가 게임 속 환경, 그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수준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는 촉각과 후각, 몸 자체가 느끼는 이동성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게임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현실의 방향이 원격조종까지 이어지게 되면 VR산업의 미래는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의 경우 정말 작고 정밀한 로봇을 몸 안에 넣어서 원격으로 수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의학계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의료계 뿐 아니라 위험한 고층빌딩이나 바다 속 탐사 등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아직 VR이 제대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도 이전에 비해 간편해야 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야 한다. 또 VR 자체도 지금보다 더 디자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VR 기기들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스크린으로 삼기 때문에 스마트폰 무게까지 고려하면 크고 무거웠다. 콘텐츠를 즐기는 도중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의 완전히 단절되는 부분도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VR로 보다가 양 옆에서 빛이 들어와서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등) 이처럼 콘텐츠의 수와 개발 환경, VR 기기 자체의 디자인과 가격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멋진 디자인의 제품들과 콘텐츠들이 나오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이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VR은 충분히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기업문화

기업문화가 조직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기업 문화는 단순한 조직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지속적 성장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업문화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어떤 기업문화가 완벽하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성공신화에는 저마다 '독특한' 기업문화가 어김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의 단점을 완전히 제거하는 노력보다는 장점을 키워가는 쪽으로 발전하면서 기업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 _ 이락희(칼럼리스트)

성공하는 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사례는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기업문화가 완벽하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완전히 상반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면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업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두 회사만큼 서로 다른 회사도 없을 것이다. 기업문화에 정답이나 공식이 있다면 두 기업 중 하나는 반드시 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여전히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승승장구 중이다.

애플의 비밀주의, 완벽주의 기업문화의 탄생

애플이 10개 미만의 제품으로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엄청난 기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기업이라면 애플을 모를 수도 있다. 애플의 기업문화는 “궁극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만 공유하는 문화”이다. 애플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회사가 직접 나서 직원들끼리 담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직원 간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기업문화나 경영학 이론과는 반대되는 기업문화이다. 이러한 문화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할 일에만 신경 쓰라'는 것이다. 애플에서는 직원끼리 소통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소통이라는 작은 것(애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을 포기하는 대신 더 큰 것을 얻었는

데 바로 업무에 대한 무한책임주의 문화이다. 자기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업문화 덕분에 애플에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 누가 책임자인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DRI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 - 직접책임자)는 어떤 과제와 관련된 문제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제품 발표를 할 경우, 이를 준비하는 문서의 가장 작은 아이টে까지 DRI가 명시되어 있다.

애플은 직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몇몇 천재들의 인사이트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애플 제품도 그렇게 탄생했다.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과업을 완료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만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애플 직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미덕이다. 이런 독특한 기업문화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애플이 대기업병(病)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안주하면서 관료화되고 혁신의 싹이 죽어버린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보 공유, 집단지성의 기업문화 완성

그렇다고 소통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정답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구글의 기업문화는 애플과는 정확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정신, 자율을 넘어 분방한 근무 태도, 놀이터 같은 근무 환경 등 구글의 기업문화를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구글의 기업문화를 한마디로 말해야 한다면 '주인의식'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직원은 구글의 주인이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참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플의 기업문화와 대비해서 말한다면 "민감한 특정 정보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모든 내부 정보는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직원들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직원들은 사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매주 한 번씩 창업자와 최고경영자들이 전 직원 앞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깔린 CEO의 경영철학은 분명하다. '집단지성'으로 구글을 경영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자 한두 명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당 분야에 정통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명의 구글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성을 보태면 실수를 피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기본 정신이다.

이런 구글의 장점은 '완벽함'이 아니다. 그들이 세상에 내놓은 제품들은 종종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허점투성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구글이 무서운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점점 더 좋아지는' 힘 때문이다. 첫 제품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 직원 내부에서도 자유로운 피드백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기업문화 개선의 정답과 공식, 흉내가 아니라 변화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기업문화란 잘하는 기업의 장점 한두 가지를 도입한다고 금방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나 인성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플이나 구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기업문화에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 다만, 좋은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조건은 존재한다.

첫째는 지향하는 기업문화가 기업의 상황에 적합

한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기업문화 개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여러 기업문화의 장점만을 가져와 그대로 이식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령 내실 경영을 강조하는 시기에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같은 문화는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관된 메시지를 지켜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철학에 따라 기업문화 개선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제대로 된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힘들다. 산발적인 개선과제만 실행해서는 기업문화가 바뀌기 힘들다.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미시적 변화보다 거시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도라도 구성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넷째는 최고경영진의 변화의지이다. 이는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경영진의 솔선수범 없이 직원의 변화만 촉구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기업문화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니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업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적인 성찰 없이 선진기업 따라잡기에 급급해서는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너도나도 반바지 입고, 10시 출근한다고 '아재 기업'에서 혁신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건 흉내에 불과하다. 기업은 기업문화 그 자체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

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60년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급급히 대기 관리에 나섰다. 농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는 미세먼지, 하지만 사람에 더 치명적이다.

글 _ 편집실

한국, 미세먼지 위험국

산업화가 급증하던 1952년 영국 런던은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으로 도시 전체가 스모그로 뒤덮였다. 공장의 화석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황화합물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속 중금속은 안개와 뒤엉켜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머물렀고, 결국 이를 흡입하게 된 영국 시민 4천여 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런 공포의 사건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하루걸러 한 번은 뿌연 하늘을 마주하고, 실외활동을 할 때 미세먼지 예보를 보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음을 졸여야 한다.

게다가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환경에서 OECD 34개국 회원국을 포함해 조사대상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 $\mu\text{m}^3/\text{m}^3$ 로 OECD 평균인 14.05 $\mu\text{m}^3/\text{m}^3$ 의 두 배에 달한다.

폐나 혈관으로 바로 침투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입자 지름이 10 μm 이하면 '미세먼지(PM10)', 2.5 μm 이하면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μm 이하로 매우 가늘어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지름이 2.5 μ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

름의 1/30로 들어마시게 되면 바로 폐나 혈관으로 침투한다.

석유 및 석탄 연료가 탈 때,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등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과 폐의 염증, 심장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미세먼지 예보구간 및 행동요령>

예보구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위험	
예측농도 $\mu\text{m}^3/\text{m}^3$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행동요령	노약자	-	몸 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요청 (특히 호흡기, 심장질환자, 노약자)	실외활동 제한	실내활동으로 제한
	일반	-	-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실외활동 자제	실내활동으로 제한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를 통해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했다. 미세먼지가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세먼지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싶다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과 신발 등을 털고 세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샤워도 필수다. 특히 세안 시에는 이중 세안으로 모공까지 꼼꼼히 닦아주고, 메이크업 제품이나 자외선 차단제는 유분이 적은 것을 선택해 먼지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또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파래, 미역 등 해조류와 섬

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다.

한 가지 더, 미세먼지는 실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폐암 환자 중 비흡연 여성의 80%는 오염된 주방 공기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외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도 간과할 수는 없다. 실내 미세먼지의 원인은 주로 카펫이나 침구, 청소기, 음식 조리 등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환경이 나타날 경우에는 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환경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 농도를 날씨처럼 예보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실시간 대기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에어코리아(m.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담아 듣는 독자 염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시우 및 가족 분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염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늘 궁금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는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민성진 사원 (이수화학 총무부)



20주년 기념식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사보를 통해서 20주년 기념식을 생생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수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는 이수그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미옥 님 (이수화학 울산생산부 김중식 선임기장 배우자)



꽃보다 남자들의 열정을 느껴주세요!

그룹 출범 20주년과 함께한 20주년 장기근속자들의 인터뷰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다양한 회사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그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임정훈 사원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몸도 마음도 힐링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하던 중 사보에 실린 청보리밭을 보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처럼 생기 넘치는 푸른 보리밭과 붉은 철쭉에 활력 에너지를 듬뿍 얻었습니다. 여름호에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배유라 님 (이수엑사보드 인사총무팀 김성원 대리 배우자)

여름호 Mini Quiz

1. 이수창업투자는 곧 개봉할 외화 '핸즈 오브 스톤'과 어떤 한국영화에 관심을 부탁했나요?

- ① 밀정
- ② 밀면
- ③ 밀림
- ④ 밀수

2. 리더의 책장에서 소개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50년 연구가 담긴 이 책은 무엇일까요?

- ① 재레드 다이아몬드
- ②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 ③ 재레드 다이아몬드 빛나다
- ④ 다이아몬드의 힘

3. 야구장 먹거리 칼럼에서 소개된 '김광현 치카치카'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 ① 치킨과 카레
- ② 치킨과 카사바칩
- ③ 치킨과 카스타드
- ④ 치킨과 카나페

4.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 심청한옥마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 ① 함천
- ② 대구
- ③ 곡성
- ④ 부산

2016년 봄호 정답

1. 이수그룹은 올해로 몇 번째 출범일? ③ 20번째
2. 장기근속자 인터뷰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멋지다? ④ 꽃
3. 작은 컵틀에 빵을 구운 뒤, 다양한 토핑을 얹어 만든 것은? ① 컵케이크
4. 심신의 피로가 누적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② 번아웃 증후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6년 봄호 업서 당첨자

- 이수화학 프로젝트팀 서태광 대리
- 이수화학 총무부 민성진 사원
- 이수화학 울산생산부 김중식 선임기장 배우자 주미옥 님
- 이수페타시스 인사노무팀 신혜정 사원
-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임정훈 사원
- 이수페타시스 생산1파트 외층 이재원 사원
- 이수엑사보드 인사총무팀 김성원 대리 배우자 박유라 님

문의 _ (주)이수 브랜드관리팀 (02)590-6895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기출호 원고 마감은 7월 30일입니다.

스무살, 이수

20년이 아닙니다 스무살입니다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스무살의 이수가 있습니다.

